

여수시,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예방 총력

6월말부터 재해대책 상황실 가동하고 현장교육·지도 집중 피해우려지역 4억 투입 그늘막 788개·액화산소 116대 공급

여수시가 양식어가에 그늘막을 지원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해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식어류 집단 폐사 등 어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기상청 예보 등으로 폭염이 예상되자 지난 6월말부터 적조·고수온대비 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했다. 이어 양식현장을 돌며 어민 300여 명에게 고수온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고 양식장 점검도 실시했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어류 양식어가에 4억 원을 들여 그늘막 788개(91어가)와 액화산소 116대(116어가)를 공급했다. 수심이 얇아 더 큰 주의가 요구

되는 신월, 우두, 군내 등 해역은 책임반을 지정해 6월말부터 집중 관리 해오고 있다. 책임반은 양식장을 지속 방문해 사전출하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고수온 특약) 가입 등을 독려했다. 책임반은 고온수기 사료공급 조절, 적정 양식밀도 유지 등 고수온 어장관리 수칙을 지도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업인들도 고수온 어장관리 요령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월 현재 여수해역에는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이 5200여만 마리 양식 중이며 수심이 얇은 신월, 우두, 군내에서 양식 중인 우럭은 전체 사육량의 12%로 집계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친절한 물축제 만든다" 물축제 자원봉사자 300명 발대식 갖고 친절 교육

정남진 장흥 물축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지난 18일 장흥군민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친절한 행사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물축제 추진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선서문을 낭독하며 자원봉사 참여 의지를 다졌다. 정중순 군수는 "장남진 장흥 물축제가 전국 대표 여름 축제로 이름을 알린 것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며, "친절한 관광객 맞이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원봉사자 친절교육은 '자원봉사자의 긍지와 친절'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물축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연꽃 재능나눔 봉사단은 메트남 전통춤 축하공연을 선보여 발대식의 열기를 달구었다. 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장흥읍 탐진강변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완도농협 신지 지점 금융교실 운영 호평

신지면사무소 후원 어업인들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금융지식을 함양시켜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도록 도와주고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는데 있다. 주요 교육은 전화 및 금융사기 예방요령, 금융거래에 따른 신용관리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강사로 나선 박명성 신지 지점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인증하는 금융전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해박한 지식으로 알기 쉽고 흥미롭게 교육을 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금융교실 운영 목적은 신지면 농

진도군의회, 진도초교 학생들에게 군의회 견학·체험



진도군의회가 진도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수) 진도군의회 견학 등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학생들은 기초의원들을 만나 분회의정을 방문하고 이어 의회 구성과 역할 및 의회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은 분회의장에서 모의 의회를 개최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자치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을 가졌다. 의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 진도군의회를 방문했는데 의회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상현 의장은 "미래를 짚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미래에 대한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기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갖고 끝까지 노력해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큰 인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과 모의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관산농협, 하나로마트 준공식

옥당리에 총 12억여 원 투입 건축면적 600.49㎡ 규모

장흥군 관산농협(조합장 위효복)은 지난 18일 오전 하나로마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억여 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된 하나로마트는 관산을 옥당리에 대지면적 987㎡, 건축면적 600.49㎡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 시설은 매장, 사무실, 정육실, 야채실, 물품창고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카트를 비치하고 자동문을 설치했다. 관산농협 하나로마트의 건립공사는 지난해 2월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분사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적정여건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관산농협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아 사업을 확정지었다. 올해 1월에는 농협중앙회 전남지



역본부 기술팀에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 설계도서 기술검토를 거쳐 공사예정 금액을 확정했다. 위효복 조합장은 "농협하나로마트를 고향의 정터로 여기고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조합원의 실익과 편의를 높이는 마트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연꽃축제 성공 개최 위한 안전대책논의

무안군은 지난 18일 군정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2회 무안연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계획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2회 무안연꽃축제 기간인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황리에 축제를 마칠 수 있도록, 구성남 안전총괄과장을 주재로 하여 4개 관공부서 및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종합안전대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에 관한 사항, 종합안전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행사장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에 관한사항,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축제가 한여름에 진행되는 만큼 폭염안전대비책을 중심으로 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사전검토회의결과를 토대로 기 수립된 종합안전대책 계획을 수정·보완해 행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